

'동악미술사학' 창간호 나왔다

동악미술사학회(회장 장충식)는 최근 <동악미술사학> 창간호를 발간했다. 창간호에는 '연가칠년명 금동불상 재고'(장충식 동국대 교수) 등 창립기념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 6편과 연구논문 4편을 실었다.

이철교(동국대 학술정보서비스팀장) 씨가 국내·외에서 간행된 불교회화 관련 논문과 단행본을 정리한 '논저목록'도 부록으로 실려 관련 전공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옹 ‘서왕가’ 가사문학 효시 의문”

임기중 교수 '불교가사연구' 서 주장

우리 나라 가사문학의 효시는 고려말 나옹화상이 쓴 '서왕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학계의 이런 통설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임기중(사진)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최근 나온 <불교가사연구>(동국대 출판부)에서 현재 전하는 불교가사 108편의 원작과 작자를 문헌자료를 통해 살펴본 뒤 "현재 전하는 나옹의 작품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문자로 기록된 것이라 할 수 있는 '서왕가'는 1704년에 간행된 <연가보문>에 수록돼 있고, 효시자 여부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던 '승원가' 역시 조선후기에 필사된 것이라 보이므로 이들 작품을 가사의 효시작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고 주장했다. 원작을 찾을 수 있는 가사 작품 대부분이 후대에 가사체로 옮겨진 사실로 볼 때 나옹의 원작 또한 가송이거나 산문이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임 교수는 "이 작품들이 노래로 구전되어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보다는 일반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문자로 정착될 당시 성행하던 가사형식을 빌려 적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나옹집> 등에서 그 원작이 되는 작품을 찾고자 했으나 찾지 못한

점도 이들 작품이 나옹화상의 작품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교수는 그 동안 원작과 실제 작자를 찾을 수 없었던 '원효대사수도가'(원래는 제목없이 '원효대사 지음'이라고만 쓰여있음)가 '서왕가'보다 이른 시기에 이미 가사로 지어지고 불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원효대사수도가'와 원효가 쓴 <발심수행장>의 내용을 비교한 결과 '수도가'가 <발심수행장>



△연가보문본 '서왕가' (복판본).

불교가사의 계통을 정리했다. 이를 토대로 불교가사의 내용유형과 시대별 존재양상, 18~19세기 전개양상, 불교가사의 구성방식과 작시원리 등을 살폈으며 부록으로 회심곡 음반의 사실을 실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오류를 바로잡기도 했다. '회심가'와 '회심곡'이 전혀 다른 독립적인 작품을 밝혀낸 점이라든지, '서왕가'에 앞서서 것으로도 보는 나옹화상수도가가 1800년대 널리 불리던 '중도가'의 이본이라는 점, 이두 표기와 관련 고려말 문학사 변동의 한 양상으로 설명되는 '승원가'가 '자책가'의 이본으로 1800년대 이후의 가사라는 점 등을 확인했다.

임 교수는 "불교가사 연구에 대한 자료조사가 미진하다보니 불교가사의 생산과 전승 및 수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통일된 관점없이 독립된 몇 가지 주제별로 다루어 가지 있지만 몇 가지 관점으로 나는 접근 방법을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다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a.com

'이산해연선사 발원문' 운허 스님 1970년 지어

을 가사로 옮긴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언해본이 1577년 간행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임 교수는 "그렇다고 '원효대사수도가'가 가사의 효시작이라는 말은 아니다"며 "다만 '서왕가'나 '승원가'는 가사장르의 발생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고 말했다.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지만 작가가 알려지지 않았던 '이산해연선사발원문'은 한문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을 최초로 시도한 운허(1892~1980)

'회심가' - '회심곡' 전혀 다른 독립 작품

스님이 1970년 봉선사에서 지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즉 우리 나라 강원에서 교재로 널리 쓰인 <치문경중주>의 '이연선사발원문'을 근래에 와서 외우기 쉽고 알기 쉽게 가사체로 옮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해 불교가사 108편의 원전을 모아 펴낸 <불교가사원전연구>(동국대 출판부)에 이어 펴낸 <불교가사연구>는 불교가사가 전하는 문헌조사가 돋보이는 연구성과다. 불교가사가 전하는 문헌을 목판본, 필사본, 활자본으로 나눠 정리하면서 여러 이본으로 유통되는

인 작품을 밝혀낸 점이라든지, '서왕가'에 앞서서 것으로도 보는 나옹화상수도가가 1800년대 널리 불리던 '중도가'의 이본이라는 점, 이두 표기와 관련 고려말 문학사 변동의 한 양상으로 설명되는 '승원가'가 '자책가'의 이본으로 1800년대 이후의 가사라는 점 등을 확인했다.

임 교수는 "불교가사 연구에 대한 자료조사가 미진하다보니 불교가사의 생산과 전승 및 수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통일된 관점없이 독립된 몇 가지 주제별로 다루어 가지 있지만 몇 가지 관점으로 나는 접근 방법을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다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a.com

'선과 생활' 워크숍

한국선학회는 20~22일 해인사 흥제암에서 월례 발표회를 겸한 여름 워크숍을 연다. 선학 스님(법주사 강사) 원철 스님(해인사 편집장) 반산 스님(승업학림 연구원) 인경 스님(보조사상 연구원 실장) 김병룡 교수(영산원불교대) 양형진 교수(고려대 교수) 이택진(고려대 강사) 김태원(부산대 강사) 씨 등이 '선과 생활'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보조사상연구 월례회

보조사상연구원은 28일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월례 발표회를 연다. 연구원이 시리드로 계획하고 있는 '불교 수행론 연구'의 첫번째로 'sati'의 의미와 실제(임승택 동국대 강사), 'vipassana'의 인식론적 근거(조준호 동국대 강사) 발표가 있다.

'회당학원 50년사' 발간

진각종 학교법인 회당학원은 최근 <회당학원 50년사>를 발간했다. 50년 여 작업 끝에 나온 <...50년사>는 1949년 건국고등공민학교 설립부터 50주년이 되는 1999년까지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처음으로 한 곳에 모았다.

“수행체험 학문적 자성의 시간”

제1차 가산포럼 학자 30여명 참석 선교점수 '공감'

불교에서의 수행뿐 아니라 유교와 도교, 윤리학 등의 입장에서 우리 시대 수행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보는 자리가 열렸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하 가산포럼)은 여러 분야 학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져 들쭉날쭉 열린 종합포럼에는 30여 명이 넘는 학자들이 학문적 자성의 시간을 가졌다. 종합포럼에서 사회를 맡았던 이승환 교수(고려대)는 "추상적 담론이 아니라 '수행'이라는 실천적 주제를 갖고, 질이러한 특수한 공간에서 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포럼"이라며 "수행의 의미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외국 유학시절 가톨릭 수도원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는 진교훈 교수(서울대)는 "절만이 갖는 또 다른 엄숙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었다"며 "절대자를 통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방영준 교수(성신여대)는 "서양학문을 하면서 내 삶과는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많이 학자로서 고민도 했었는데, 절에서 잠깐이나마 수행을 직접 해보면서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 알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연구실장 현원



△제1차 가산포럼에서 참가자들이 해인사 선원장 원운 스님에게 간화선의 '요체'에 대한 강연을 듣고 있다.

스님은 "수행문화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진정한 지성의 의미를 각성토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역사학이나 물리학 등 다른 분야의 학자들을 포럼 때마다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행의 가치와 우리의 미래'라는

대주제로 삼국시대부터 근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를 이끌어온 불교지성을 통해 이 시대 지성의 새로운 책임과 역할을 집중 조명할 가산포럼의 두 번째 포럼은 12월 오대산 월정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범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여러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험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값 3,500원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남국선원장 해국스님께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판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판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판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제,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불교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참회·칭찬·내면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부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온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모범이 참회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실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이 책을 읽고서,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속으로 들어가 는 불교를 띄어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X 6판 / 값 3,500원

(구성)
I 업장과 참회 II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III 절을 통한 참회 IV 참회염불
V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VI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영가천도를 위한 지침서 **지장신앙·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 뿐 아니라 업장감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축원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찬,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